

지음 知音

이 개월이 지나자
우리는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지음이로세.

목차

1. 일정표

2. 스텝 소개

3. 아띠가 만난 사람들과 활동내용

4. 녹색소비

5. ... 그밖에 ...

일정표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T 수해복구
수해복구	Day off	Nursery Center	Nursery Center			Day off
		1기 만남				
Café Natang	Y camp art class	조문	빈곤퇴치 캠페인 준비	악기 구입	Mr. 노먼 만남	과학키트 수업
						이유정 단 원 만남
Organic farm	Organic farm	Organic farm				JJ market
	빈곤퇴치 캠페인					
퍼포먼스 준비	UNESCO seminar	Second hand clothes 정리	집 개/보수	Organic fair		Day off
Homestay 준비	아한 까올 리 데이					

SKP 가족 소개



이름 : P. Pre

나이 : ? 50대 초반으로 추정

직책 : Head

태생 : 일본으로 추정

특징 : 128db로 "이히~~~~~" "맛있다~~"를 외침.

선홍빛 잇몸이 매력적임.

알 수 없는 개그코드.

미친 인맥.



이름 : P. Mom

나이 : ? 40대로 추정

직책 : manager

특징 : 고딩 아들을 둔 엄마지만 음식 하는
걸 싫어함.

번역 잘 도와주심.

태국어 & 문화 아짤(선생님)

전 기수가 선물로 드린 아띠 바람막이를 사랑함.



이름 : P. Nang

나이 : P.Pre가 존칭을 씬.

직책 : 엄마

특징 : 워씽(ing발음이 살아있음)
"라온아띠, 낀 카우~~"

P.Nang이 말하는 닛너이
(조금)는 여여(많이많이)임.

한국음식 연구가

환경미화 담당

엄마 품 소유자

피몸과 같이 바람막이를 사랑함

이름 : P. Yo
나이 : 아직 29
직책 : 코디 및 페북 매니저
특징 : 파인애플 머리
음주가무를 좋아함
카페 가서 영어 쓰는 것을 즐김.
숨다(슈퍼스타) in SKP
한 달 월급 털어 DSLR 지름
I need a girl
우리는 아직 피요를 모른다.





이름 : P. 빼약

나이 : 50대 언저리

직책 : Driver, 아빠

특징 : 개마초

요일에 맞지 않는 Y 티셔츠

장딴지와 가자미근 종결자

아빠배

운전자 선글라스

바람의 레이서

이름 : P. Sing

나이 : 36세

직책 : Y 막내

특징 : Diligent Man

엔지니어

말이 없으심

모자 벗으면 관참음

힘든 표정으로 한국음식 잘 드셔주신다



아띠가 만난 사람들과
활동내용

9월 PT발표



이름 : 팻차린

직책 : Chiangmai Y Big Head

특징 : 닳고 싶은 웃는 얼굴

30살 이후의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말이 맞는 듯.

9월 활동 PPT를 발표하면서 9월 동안의 활동과 느낌을 공유하고, 피드백시간을 가졌다.

그 분들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감동받았다. 팀원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계속 질문하고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다음에 발표할 땐 미리 연습 해보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태국어를 최대한 많이 써서 발표해보자^^

Saohin Y 수해복구



이름 : Uni-Y
특징 : 잘 논다.
그 중에 한 명 한국말 잘한다.
훈훈하다.

우리가 자청해서 사오힌 수해 복구에 참여했다.^^
왜 태국 건물이 모두 타일바닥인지 오늘에서야 이해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하는 방식이 비효율적인지 효율적
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즐겁게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오랜만에 우리 말고도 태국 청년들을 만나서 좋았다.

Saohin Y 수해복구



Nursery Center



이름 : P. Nop

특징 : 색색 팔토시

해외에 대해 관심이 많다.

세상을 넓게 보는 것 같다.

웃는 모습이 싱그러워서 계속 생각난다.

절대 타이밍(일 끝나자마자 옴)

배려 깊은 사람

이름 : 낸

특징 : 마이를 좋아한다. 그 뿐이다.

호불호가 확실하다.

피낭 딸이 아니고 조카다.

SKP Y 근로장학생



Nursery Center



Nursery Center



일 끝낸 마지막 날 뽕*_*!



Nursery Center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1

Nursery Center



우리가 피요에게 처음 듣기로는 그 사람들이 매일 같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이 약간의 활력소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우리끼리만 활동해서 아쉬웠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하길 원했는데 너무 배려해주셔서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지 못해서 아쉽다.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잡초 뽑아주기, 코코넛 껍질로 화분 밑 채우기, 콩 껍질 까기 등의 활동을 했다.

1기와의 만남 - 고두원씨/ 안효섭씨 부부



우리도 결혼하면 올 사람은 여기로 신혼여행을 오기로 다짐했다. 많이 기대했는데 만남이 짧아서 아쉬웠다. 신부 분이 호불호가 확실하고, 바지 취향이 좋은 것 같다.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좋았다.(처음으로 고기를 구워먹었다! 우헤헤^^)

나땅, 그와의 만남.



이름 : P. Bban

특징 : 피뻘 훈훈하다. 사람이 너무 인자하고 부드럽다. 피뻘을 만날 땐 화장이 필수다. 인정하기 싫지만 피뻘과 잘 어울린다.

처음으로 나땅을 찾아 나섰는데 길을 묻고 200KM를 걸어가라고 해서 5분 만에 도착한 곳이, 나땅이었다.

항상 설거지를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다. 아띠들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쉼터인 것 같다. 그의 도움 덕분에 좋은 약기를 구입할 수 있었다.

Y캠프 오리엔테이션 및 art class 수업



Y캠프 오리엔테이션 및 art class 수업



이름 : Y덱덱(아이들)
특징 : 아띠들을 잘 다룬다.

우리 오가닉 팜에 가기로 한 일정이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취소되어서 Y캠프를 도왔다.
오랜만에 아이들과 신나게 논 것 같아서 좋았다. 오랜만에 수업 구상을 해서 좋았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잘 다룸을 당하는 것 같다.

Organic Farm 장례식 방문 ▷◁

조문하고 화분을 드렸다. 그리고 오가닉 팜을 잠깐 둘러보았다.
같이 생활할 퍼와 매를 미리 만나볼 수 있었다.
오가닉 팜에서의 생활을 많이 기대했는데 일정이 줄어서 아쉬웠다.
처음으로 태국 장례 문화를 엿볼 수 있어서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다.
우리나라 장례문화랑 약간 비슷한 것 같다.

기타(가시오가피) 우크렐레랑 하모니카(하몬)를 만남



이름 : 가시오가피(기타)

특징 : 아침에 연주하면 숙취 해소
에 좋다.

이름 : ?(우크렐레)

특징 : 팀원들이 BNW(블랙 앤 화이트)라고 부름.

이름: 하몬(하모니카)

특징 : 워니몬 하모니카라서 하몬.
요즘은 그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Day off여서 치앙마이에 갔다. 피
뻘이 가르쳐준 악기점에 가서 기타,
우크렐레, 하모니카를 구입했다. 애
칭도 붙여줬다.

악기점 아줌마를 통해서 태국 사
람이 생각하는 한국인의 시골벽적
한 이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Mr. 노먼 만남



이름 : Mr.노먼

나이 : 70대 초반

특징 : 그에게 배울 점도 많은 것 같고 앞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생각함.
태국에 오래 머무셨는데 태국어를 잘 못함.
마이(진숙)와 커피 취향이 같다.
왠지 어디선가 계속 만날 것 같다.

치앙마이 공항에 노먼씨를 마중 갔다.
이 때는 노먼씨와 함께하는 일이 이렇게 많을지 몰랐다...

과학키트 수업



처음으로 과학 키트를 사용했다. 한 번 미리 연습해보고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보다 결과가 잘 안 나와서 아쉬웠다. 물의 비율을 정확히 재서 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ㅠ_ㅠ

과학키트 수업





1기 이유정 단원과의 만남

이름 : 이유정

특징 : 진짜 방콕(시티걸) 같았다.
샤랄라 치마와 네일아트.
방콕의 구재현 단원 같은
인물이 되고 있다.
워니몬의 친구였다(과거형).

휴식하고 있는데 몬의 친구인 1기 유정언니가 방문했다. 그 때 피곤해서 자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방문해서 조금 놀랐다. 그래도 방문해줘서 고마웠고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될지 몰랐다. 1기 아띠에 대해서, 라온아띠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Organic Farm



이름 : P. 차이(남자들의 아빠)
특징 : 마을 이장님.
자상하시다.
남자들을 위해 개구리와
돼지를 잡아주셨다.

이름 : P. 짠(남자들의 엄마)
특징 : 일본어를 잘함
일본인의 외모
남은 안 챙겨도 우리 가족은
잘 챙긴다.



이름 : 피깜(남자들의 이모)
특징 : 개마초. 그 뿐이다.
Boss 엄마

이름 : Boss
특징 : 마이 루, 마이 디, 땡땡! (몰라, 안 좋아, 바보!)
....무에타이에서 여자애한테 졌다.
마이 차나. (졌다.)
애는 애다.



Organic Farm



이름 : 퍼문(여자들의 아빠)

특징 : 아빠다.

광부 후레시 소지.
우리가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아빠도 못 알아들으신다. ㅠ_ㅠ
자주 상의 탈의하신다.
매일 가게 보신다.

이름 : 매편(여자들의 엄마)

특징 : 수어이 막막~ 킷통 막막~ 켜
마이? 낀 익, 낀 익!

(너무 예쁘다. 너무 보고싶다,
짜? 더먹어, 더먹어!)

엄마의 사랑.

사진을 잘 못 찍으신다.

Organic Farm



마늘 까기



카놈쩍 만들기



쌀 담기

Organic Farm



뚝뽕라(뉡시)



왓(사원)에 가서 의료봉사 온 거 보고, 사람들이랑 와이(절) 하러 다녀옴

Organic Farm

왓(절)에 가서 공연 감상.



왓에 가서 기도함

무에 타이 관람



마을사람들이랑 춤추고 술 마시며 행진.



Organic Farm (JJ Market)



팜스테이 마을의 유기농 농작물을 팔기 위해 JJ마켓에 갔다^^
완판을 못해서 아쉬웠다ㅠ_ㅠ 이윤이 많이 남지 않는 것 같다. 새벽시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끝나는지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작업해놓은 상품을 파니까 더 뿌듯한 것 같다.

일주일간의 organic farm (총평)

안성원 : 내가 처음에 가기 전에 기대했던 것 보다 더 많이 생각해보고, 보고, 느꼈던 것 같아서 한마디로 한다면 신대륙 발견! 숨겨져 있던 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만남과 이별은 항상 옆두에 뒤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역시 기억에 남는 건 사람이다.



일주일간의 organic farm 총평



남하영 : 가족 구성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아버지가 도시에 가서 일 한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노래하는 포스 있는 아줌마도 가족의 역할이 우리랑 많이 다르다. 아빠의 역할이 생각보다 작고 엄마가 더 힘이 세다. 분명히 일하는 곳은 밭이라고 생각했는데 생활의 중심이 도시인 것 같았다. 농촌사람의 사고방식보다는 도시를 떠난 도시인의 사고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Boss도 치앙마이에 여자 친구가 있다고 하고 엄마와 아빠도 도시에 가면 이런 거 저런 거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걸 듣고 그렇게 생각했다. Boss를 보면서 SKP 아이들은 주말에 여기도 오면서 영어를 배우고 하면서 지내는데 이 아이들은 아니구나. 아이를 키우는 방식 두 가지를 볼 수 있었다. 조금 신기했다. 왓(사원)이 왓을 넘어선 것 같다. 온갖 이벤트를 다하고 술 마시고 담배도 피고 우리슈퍼는 생필품을 파는 곳이 아니고 술을 파는 것이 주업인 것 같다.

일주일간의 organic farm 총평

백상현 : 푸차이 아빠는 Y에 있다가 오신 분이였다. 농촌 일을 해 본 사람과 일해 본 적이 없는 분이라 밭에서 일하는 체험 같은 거 못해서 아쉽다. 앞으로도 홈스테이를 갈 건데 자발적 불편함을 조금씩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부엌 쪽에 개미와 애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을 보고도 지나치는 거 보고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홈스테이를 가면 더 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감수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각자 자기는 원래 그런 거 싫어하니까, 안 좋아하니까 이런 생각은 조금 버려두고 자발적으로 하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겠지만 일주일 생활한 것을 연습 삼아서 생활하자. 그래서 저도 돼지 피 한 번은 시도했는데 두 번은 못 먹었다.



일주일간의 organic farm 총평



장아리 : 밭일하고 농장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또 할 일이 생각보다 적어서 우리가 왜 왔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환경에 적응 잘 안 돼서 씻는 거, 자는 거, 화장실 가는 것들이 불편해서 있는 내내 마음이 편치 못 했다.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은 내가 못 먹는 것들이라서 먹기 힘들었다. 내가 음식을 많이 가리는구나 생각했다. 내가 마을주민들이랑 어울릴 때 마음 불편하게 있어서 진숙이가 위로를 해주며 하고 싶은 것만 하라고 해서 서로 생각하는 건 다르다고 생각했다. 신세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공감이 잘 안되었다.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 하지만 팍치랑 레몬글라스는 잘못 먹겠다.

일주일간의 organic farm 총평

김진숙 : 일단 말을 전달하는 것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마음대로 하라고 했던 것은 정말 하기 싫은 것은 제외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라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에게 너무 불편해 보이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이 따라주는걸 하면서 마음 편히 즐겁게 있길 바랐다. 나도 처음에는 밭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안 해서 아쉬웠지만 마을과 사람을 만나러 온 것 같다. 환경이 다소 낯설었지만 엄마랑 마을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더 좋았던 경험 같다. 피요가 말한 대로 더러운 것을 보았을 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하는 것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불평 먼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자발적으로 한 번은 시도해 보고 내가 정말 못 참고,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먼저 말하고 서로 맞춰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불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 곳을 하나의 새로운 곳으로 보는 것 자체가 내 안의 오리엔탈리즘이 박힌 것은 아닌가 생각했다. SKP Y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곳은 살기 좋은 곳이고 팜스테이 같은 곳은 태국의 새로운 면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알게 모르게 이런 곳이 태국이다라는 오리엔탈리즘이 박힌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냥 태국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좋은 사람들이 있던 곳이었다.



빈곤퇴치 캠페인



마켓에 가서 MDGs의 8가지 목표를 주제로 빈곤퇴치캠페인을 했다. 8가지 목표 피켓을 사람들에게 선택하게 한 후 인증샷을 찍고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진을 메일로 보내드렸다. 그리고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한 후 포스트잇에 적어서 게스트북에 붙이도록 했다. 100명의 사람을 목표로 온도계 모형을 제작해서 1인당 한 칸씩 눈금을 칠하게 했는데 55명을 달성했다.

빈곤퇴치 캠페인



우리 6기 공통 캠페인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려 노력했지만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다. 캠페인을 수행하는데 도와주신 마을 관계자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즐겁게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들이 캠페인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에 대해 아쉬움이 남지만 다들 너무 수고해줘서 고맷다. 끝으로 라온아띠의 end poverty 캠페인이 따뜻한 세상으로 향하는 뜻 깊은 기억으로 사람들의 가슴에 남길 바란다.

이때 Boss를 처음으로 만났다. 우리 캠페인을 도와줘서 고맷다. 착하고 싹싹했다. Mr.노먼, 1기 이유정 단원이 캠페인을 함께 해줘서 고맷다.

퍼포먼스 준비

다음 날 유네스코 세미나에서 할 퍼포먼스로 텔미를 연습했다. 원더걸스는 대단하다. 쉽게 볼 게 아니었다. 2PM과 블랙 앤 화이트는 어디로 갔나... 돌려서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힘들었지만 마지막에 같이 맞춰서 끝내니까 성취감이 들었다. 마이와 싸가 안무를 알고 있어서 생각보다 빨리 끝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유네스코 세미나



유네스코 세미나

유네스코 세미나에 참석했다. 저녁 때 뒷풀이 파티에서 유니Y를 만났고, 퍼포먼스를 했다.

간만에 국내 훈련 느낌이 들어서 열정과 애정이 살아났다. 이선재 선생님을 만나서 좋았다. 젊은이들과 실무자들의 생각의 다름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선재 선생님 은근히 우리를 보고 싶어 하셨던 것 같은데 티를 안 내시려고 하셨던 것 같다. 또 노먼씨와 유정언니와 함께 했다.

수해복구 때 만났던 유니Y들을 다시 만나서 반가웠다^^

이름 : 이선재

특징 : 수염

폭풍가창력

츨데레(기면서 아닌척 하기)



Second hand clothes 정리



Organic Fair에서 팔 옷과
홈스테이 마을 학교에 나눠
줄 옷을 분류 했다.

아이들이 그것을 입고 따뜻
하게 지낼 것을 생각하니 우
리마음도 따뜻해졌다..... 그
래서 잤다. (피곤했어요^^;)

Poor people house 개/보수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2

Poor people house 개/보수

이름 : Y Development사람들
특징 : 몇몇은 무한체력을 가지고 있다.
일 열심히 하느라
대화를 많이 못나눴다 ㅠㅠ



사랑의 집짓기 현장에 가서 열심히 일했다.
역시 땀 흘리는 것은 좋은 일이다. 오랜만에 노력 봉사를 해서 좋았다. 그 곳에서 먹은 커피는 정말 맛있다. 혼자였다면 못 해냈을 것 같지만 함께 했기 때문에 나의 역량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노먼씨도 함께했는데 그 나이에 정말 대단한 것 같다.

Organic Fair



organic fair에서 수재민을 위한 행사를 했다.. 헌 옷, 커피, 헌 책, 핸드메이드 상품, 한국 음식 등을 팔아서 모금활동을 했다.

사람들이 기부를 위한 것이라며 상품도 많이 사주고 기부도 많이 해주셔서 감동적이었다. 여기도 나이가 적은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보다 힘든 사람이 기부를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아무튼 즐겁게 잘 한 것 같다. 이틀 동안 한 활동이지만 소득도 많아서 더 좋았던 것 같다. 또 아한 까올리(한국음식) 완판해서 기뻐다. 어딜 가서든 잘 할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다. 좀 오래해서 그런지 기억이 많이 남는다.

Organic Fair



Organic Fair



이름 : 이유정
특징 : 잘나온다잉
6기랑 1기랑
기준이 먼지 애매하다잉.
내일 또 만난다.



이름 : P. Nan
특징 : Organic Fair의 총괄자.
기부의 큰손



이름 : Mr. 노먼
특징 : 신상 카메라로 열심히
사진 찍으신다
또 볼 거 같다.
비자 트립조차 같이 갈 것 같다.
부항에 관심이 많다.
천연삼푸에 관심이 많으시다.



아한 까올리 데이(한국음식의 날)



**오늘의 메뉴는!
김밥과 김치찌개!!!!!!!!!!!!!!**

아한 까올리 데이(한국음식의 날)



제 2회 아한까올리 데이를 맞아 아띠 태국팀은 김밥과 김치찌개를 스텝들과 인근주민 Bas(25, 싡캄 팽 워킹스트리트 거주)에게 대접하였다. 김밥을 스시로 오해하고 간장에 찍어 드셨다...아....



녹색소비



9월에 새로 시작하기로 했지만 성공률 0%를 달성했던 “일회용컵 사용 줄이기”는

이번 달에 약 **60%**정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새로 하기로 한 “양치컵 사용하기”는 컵을 사지 않은 관계로 성공률 **0%**를.....
고로 지금 당장 사러 갑니다.ㅠ_ㅠ

그 밖에도.....^^



....**축축해**



오뜨꾸뛰르
2011 F/W 신상

전문가 총평 : 이번 가을 겨울 패션은 어깨에 뿔이 들어간 자신감 패션이 크게 유행할 것으로 보이며 원색의 강렬함과 오렌지색의 액세서리가 크게 유행한다.

상의 1Bhat
하의 2Bhat
백 (보세 제품)

모델 안성원(25 대구광역시 거주): 평소에 길거리에서 옷 사는 걸 즐겨요 옷으로 저를 표현하는게 정말 즐거워요^^



저 이발 했어요 ^^



월간 '스피드' 10월호

품종 : YAMAHA Z-100
배기량 : 맥주 500cc
모델 소속 : 싼깜팡워킹
스트리트모터스

모델 김진숙 (23 인천광
역시 거주)

Q: 김진숙에게 자유란?

A:저는 스피드를 즐겨요.
바람에 나를 맡길때 전
자유를 느끼죠^^



오잉? ㅇ.ㅇ????



월간 '팔라'

올해의 주류 품평회에서
대상을 탄 Hong
Tong 위스키를 맛을
본 남하영씨(22 서울
특별시 거주)

"그냥 맛만 보려고 했
어요.... 제가 막내라는
걸 잊었죠..."
라며 다음날 고개를
떨구었다.



우크렐레 한 똑배기 하실레예?



농민 신문
전국 각지에서 농민봉기가 잇따라....
"일어나라 전우들이여. 쟁기와 낫을 들고 나를 따르라."
라고 치앙마이 읍 장아리 부녀회장이 알림.

달이 차고.....
내 마음도 차고....





오늘도 상현씨는 낚시대를 드리웁니다.....



사랑해요
미리미리

고맙습니다^^♥